

경사스러운 10 월들에 인민이 받아안은 만복의 선물들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맞으며 련포농산물농장이 준공되어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졌다.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될 은 실남새생산기지이다.

눈썹이 아득하게 펼쳐진 수백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은실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만이 인민에게 선물로 안겨줄수 있는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이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수많은 정당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 당도, 특히는 그 어느 나라 집권당도 자기의 창건일에 인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창조물을 선물로 안겨주는것을 본분으로,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는 그런 참다운 인민의 당은 없다.

오직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조선로동당만이 자기의 생일에 의의깊은 선물을 마련하여 인민들에게 가슴가득 안겨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인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창건 기념일에 인민들에게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여 안겨주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고 계신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주제102(2013)년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진 기념비적창조물들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공화국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도록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적인 물놀이장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더전까지 잡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형성안만도 113건이나 보아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건설장을 찾으며 건설에서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헌신속에 10여만m²의 방대한 부지면적에 각종 수조와 물미끄럼대, 물놀이기재들이 짝 들어찬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을 갖

춘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완공되어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문수물놀이장만이 아니다. 폭양이 내리쬐이는 삼복의 어느날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을 당창건기념일까지 앞당겨 완공하여 당의 선물로 안겨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고 비내리는 곳은 날 옥류아동병원건설현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는 아동병원을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주는것만큼 건설도 최상의 수준에서 하고 설비들도 최상의것으로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에하는 원수님 이시다.

이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 불같은 진정에 떠받들려 해마다 어머니당의 생일이 되는 경사스러운 10월들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지게 되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라선시 선봉구역 백학동, 미래과학자거리, 류경안과종합병원, 룡악산비누공장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의 선경마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2013년 10월)



옥류아동병원 (2013년 10월)



문수물놀이장 (2013년 10월)



미림승마구락부 (2013년 10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4년 10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2014년 10월)



평양육아원, 애육원 (2014년 10월)



미래과학자거리 (2015년 10월)



라선시 선봉구역에 일떠선 살림집 (2015년 10월)



류경안과종합병원 (2016년 10월)



룡악산비누공장 (2016년 10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2018년 10월)



련포농산물농장 (2022년 10월)



은파군 대청리 (2020년 10월)

하나하나가 다 인민들에게 보탬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중한 재부들이기에 인민은 령도자를 우리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것이 아니겠는가.

진정 나라의 령도자가 해마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선물을 구상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불철주야 헌신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볼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가중되는 압박과 련이 자연재해가 겹쳐드는 어려운 속에서 이런 소중한 선물들을 마련하여 인민에게 안겨준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만복의 선경들은 오로지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고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주실 숭고한 사랑과 정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인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마련하여 인민에게 안겨줄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값진 선물들인것이다.

이번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인민에게 안겨진 소중한 선물인 련포농산물농장 보아도 결코 수월히 마련된것이 아니다.

레넌과 달리 올해는 적대세력의 압박이 극도에 달하고 여기에 돌발적인 악성전염병사태가 조성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다.

특히 련포농산물농장건설은 그 규모와 형식, 내용에서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것이었다. 수백정보나 되는 넓은 부지에 1정보농실을 비롯하여 각

종 크기의 온실 수백개를 그것도 수경배배기술과 종합적인 영양분석체계를 비롯하여 선진적인 기술들이 도입된 최상의 수준으로 일떠세워 하였으며 1 000여세대의 살림집은 각이한 형식과 색깔로 농촌살림집건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워 하였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방대한 건설과제였다.

하지만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드림없는 신조로 올해 정초 련포농산물농장건설에정신을 찾으시어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건설의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에하는 원수님 이시다.

건축이래 대동원이라고도 할수 있는 악성전염병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련포농산물농장건설은 우리 당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며 공사가 중단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련포농산물농장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될수 있었다.

참으로 미증유의 격난을 이겨내며 굴함없이 전진해온 올해 투쟁의 상징과도 같은 장대한 련포농산물농장의 경관을 바라보노라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하고 부러운 새 생활을 안겨주시러 위민헌신의 령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끓이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값진 재부들을 거둬들여 안겨주시면서도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다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전진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경에하는 원수님 이시다.

어머니의 사랑은 진함을 모르고 그물을 알수 없듯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그 열도와 깊이에서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열렬한것이다.

그이께서는 얼마전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하신 기념강의에서 인민의 진정한 심부름꾼들로 되라고 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좋은 관점과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속에서도 양보할수 없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훌륭한 선물을 마련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위우에는 온 세계가 부러워할 천하제일강국의 래일이 하루하루 앞당겨져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